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375-383,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375

# 표준화환자 활용 정신간호학 융합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가 전이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오현주, 김미자, 박경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on Motivation to Transfer in the Practicum of Psychiatric Nursing Convergence Simul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learning

Hyun-Joo Oh, Mi-Ja Kim, Kyung-Mi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무에 접하기 전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144명의 3학년 간호학생이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상관분석을 하였고, Baron & Kenny의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만족도와 학습자기효능감(r=.686, $p$<.001),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r=.633, $p$<.001), 학습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r=.804, $p$<.001)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습자기효능감은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7.63, $p$<.001).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이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주제어 :** 표준화 환자, 정신간호, 융합 시뮬레이션,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

**Abstract**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ing satisfaction and motivation to transfer of nursing students who received the psychiatric nursing convergence simulation practicu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Participants were 144 third grade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following the Baron and Kenny's method and Sobel test for mediatio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learning(r=.686, $p$<.001), learning satisfaction and motivation to transfer(r=.633, $p$<.001) and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motivation to transfer(r=.804, $p$<.001). Self-efficacy in learning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and motivation to transfer(Z=7.63, $p$<.001). To increase the motivation to transfer, strategies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re required.

**Key Words :** Standardized patients, Psychiatric nursing, Convergence simulation, Satisfaction, Self-efficacy,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Kyung-Mi Park(suhein20@dst.ac.kr)
Received June 25, 2020 Revised July 28,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과정은 이론적 지식과 간호실무능력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간호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학습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임상실습교육이 필수적이다[1]. 특히 정신간호 실습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환자의 질병특성 상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적용하는 등 정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중재가 더욱 중요하다[2]. 그러나 간호학생들은 정신간호 실습과정 중 학습한 내용을 임상실습현장에 적용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불안, 두려움, 부정적 태도를 흔히 경험하며[2,3] 환자와 치료적 상호관계 형성이 어렵고 자기효능감 저하와 위축을 경험하는 등[2-4] 이론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이 실무에 잘 실행되는 것은 교육의 효과에서 중요한 점이다[5]. 간호교육을 간호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Ayres[6]는 학습전이동기모델을 제안하였다. 학습전이동기란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을 임상현장실무에서 실행해 보고자하는 의지와 노력을 뜻한다. Ayres[6]는 전이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학습동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습대상자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그 중 표준화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임상실습의 제한점과 실무중심의 임상수행능력,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을 습득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전략으로 정신간호영역에서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3,7-9]. SP는 실제 환자와 똑같이 훈련된 일반 사람을 뜻한다. SP를 활용한 실습은 임상실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을 통해 실제 환자가 한꺼번에 나타내기 힘든 다양한 임상상황을 구현하고[9] SP와 상호작용을 통해 간호중재를 실습할 수 있다[8]. 간호학생은 SP와 의사소통하면서 임상현장 적응력, 순발력을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은 지식습득, 의사소통 기술, 자기효능감, 학습동기와 임상수행능력 및 학습만족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다[3,7-11].

Ayres[6]에 의하면, 전이동기는 학습자의 행동변화에 중요한 요인이며 전이동기가 형성되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학습동기, 대상자들의 반응, 학습 후 자기효능감, 교수자지지 및 동료지지, 수행자신감, 전이기회 등이 확인되었고[6,12-14] 이 변수들 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반응과 학습 후 자기효능감은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가능하다[3].

학습만족도[6,15]는 교육의 결과인 대상자들의 반응이며, 학습자 자신이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만족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습득에 있어 중요한 요인[16]이다. 학습만족도는 간호학생의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의사소통과 상관관계가 있으며[16] 학습동기,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인 학습자기효능감[6]은 지식과 행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 보고된다[18]. 학습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수행과 학습과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수행하는 전략에 영향을 준다[7].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학생의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도[19,20], 임상수행자신감[13,21] 및 학업성취도[22,23]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 전이동기와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5,12-14]. 학습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동기, 학습만족도를 높여 전이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SP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임상현장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학습만족도 및 학습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습득한 임상수행능력을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이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SP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연구 중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 학습 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습만족도가 전이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및 전이

동기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가 학습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전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144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중간크기), 독립변수 3개(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가 121명이었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3, 양측검정일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38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3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설문지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9명을 제외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는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 정도, 즉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내용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2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3]에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선행연구[3]의 Cronbach's $\alpha$는 .88,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 2.3.2 학습자기효능감

학습 자기효능감은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며[6], 본 연구에서는 Ayres(2005)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에 맞게 수정한 선행연구[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7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선행연구[3]의 Cronbach's $\alpha$는 .95,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2.3.3 전이동기

전이동기는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얻게 된 지식 및 기술을 임상현장 실무에 적용할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6]으로 Ayres(2005)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한 선행연구[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7점 Likert이며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7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이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0이었으며 선행연구[3]의 Cronbach's $\alpha$는 .94,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 2.4 SP활용 정신간호학 융합시뮬레이션실습

SP활용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주제는 정신간호학 교수 2인이 현장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간호 실무에서 치료적 관계형성, 의사소통 및 간호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6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실습은 학생 25명을 한 단위로 1주일에 1회 5시간씩 총 30시간을 수행하였다. 각 주제별 5시간의 수업운영은 SP활용 융합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10분), SP와 시나리오 및 지침에 대한 소개, 주제별 사전교육(30분), 조별 학습 및 역할분담(20분), 각 25분씩 6개조의 조별 팀 활동을 통한 SP와 시뮬레이션실습(150분), 실습교육 후 전체 학생의 조

**Table 1. Convergence simulation program**

| Step | Contents | min |
|---|---|---|
| 1 | Orientation for the program | 10 |
| | Description of the SP, situation, guidelines, and pre-education by theme | 30 |
| | Group work for specific situation and pre-study, role sharing | 20 |
| 2 | Simulation practice 6 groups | 150 |
| 3 | Group activity VCR viewing | 30 |
| | Debriefing and sharing of thoughts and feelings | 60 |

별 활동내용 동영상 시청(30분), 디브리핑 및 실습소감(60분)으로 진행되었다(Table 1 참고).

##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3학년 1학기부터 정신간호학 이론수업을 수강하고 있었으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 참여하였다. 자료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집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 전 연구자가 연구목적, 연구절차, 응답된 내용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보장하였다. 또한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뒤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자가 보고형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이었다. 완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지 않고, 대표를 통해 밀봉된 봉투에 담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고유 코드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작은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 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과 종속변수의 자가상관성을 확인하였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분석을 이용하

**Table 2. Differences of Learning Satisfaction,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Motivation to Transf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4)

| Variables | Categories | n(%)or M±SD | Learning Satisfaction | | Self-efficacy in Learning | | Motivation to Transfer | |
|---|---|---|---|---|---|---|---|---|
| | | | M±SD | t or F(*p*) Scheffé | M±SD | t or F(*p*) Scheffé | M±SD | t or F(*p*) Scheffé |
| Gender | Female | 128(88.9) | 31.02±4.96 | -0.04(.971) | 55.01±8.92 | -0.32(.751) | 54.40±9.14 | 0.30(.767) |
| | Male | 16(11.1) | 31.06±3.70 | | 55.75±7.64 | | 53.69±8.25 | |
| Age | 20~23 | 108(75) | 31.29±4.92 | 1.15(.253) | 55.63±9.02 | 1.28(.202) | 54.69±9.19 | 0.84(.401) |
| | ≥24 | 36(25) | 30.22±4.48 | | 53.47±7.85 | | 53.22±8.54 | |
| Grade point | <2.5 | 9(6.3) | 31.22±3.23 | 0.44(.781) | 58.56±8.65 | 1.56(.190) | 56.11±6.92 | 1.40(.236) |
| | 2.5~2.9 | 33(22.9) | 30.12±5.90 | | 52.06±11.35 | | 51.21±11.90 | |
| | 3.0~3.4 | 50(34.7) | 31.54±4.55 | | 56.04±7.40 | | 55.70±7.49 | |
| | 3.5~3.9 | 43(29.9) | 31.00±4.39 | | 55.35±7.75 | | 54.53±8.54 | |
| | ≥4.0 | 9(6.3) | 31.33±5.77 | | 56.22±8.51 | | 55.22±7.56 | |
| Motivation of personal major choice | Aptitude[a] | 66(45.8) | 31.73±4.94 | 2.32(.078) | 56.50±8.23 | 1.66(.179) | 56.08±7.90 | 2.78(.043) |
| | Grade[b] | 19(13.2) | 31.26±3.30 | | 56.21±8.18 | | 55.26±8.14 | a>c |
| | Suggestion[c] | 44(30.6) | 29.48±4.98 | | 53.11±9.36 | | 51.18±10.77 | |
| | Yearn[d] | 15(10.4) | 32.13±4.76 | | 53.27±9.36 | | 54.60±7.30 | |
| Motivation of social major choice | Volunteering | 31(21.5) | 31.26±4.73 | 0.50(.610) | 56.74±7.68 | 0.84(.434) | 55.65±7.00 | 0.96(.386) |
| | Employment | 62(43.1) | 30.56±5.04 | | 54.24±9.66 | | 53.16±10.60 | |
| | Job stability | 51(35.4) | 31.43±4.66 | | 55.12±8.24 | | 54.92±7.94 | |
| Hoping to work on a psychiatric nursing part | Yes | 57(39.5) | 32.23±4.07 | 2.52(.013) | 56.05±8.29 | 1.08(.282) | 54.86±8.99 | 0.57(.570) |
| | No | 86(60.5) | 30.19±5.14 | | 54.43±9.10 | | 53.98±9.13 | |
| Understanding of psychiatric nurses' role | Yes | 98(68.1) | 31.10±4.97 | | 55.15±9.11 | | 54.78±9.73 | -0.89(.378) |
| | No | 46(31.9) | 30.85±4.55 | -0.29(.769) | 54.96±8.07 | -0.13(.901) | 53.35±7.28 | |
| Satisfaction of practice | Dissatisfaction[a] | 5(3.5) | 26.00±3.67 | 17.21(<.001) | 48.00±4.53 | 5.76(<.01) | 46.60±5.86 | 7.34(<.01) |
| | So-so[b] | 45(31.3) | 28.40±4.59 | a<c | 52.42±8.77 | a<c | 51.16±9.19 | a<c |
| | Satisfaction[c] | 94(65.3) | 32.54±4.26 | | 56.74±8.48 | | 56.24±8.48 | |
| Satisfaction of major | Dissatisfaction[a] | 14(9.7) | 27.79±6.51 | 4.21(<.05) | 48.71±11.50 | 5.70(<.01) | 48.50±11.71 | 4.31(<.05) |
| | So-so[b] | 64(44.4) | 30.92±4.67 | a<b, c | 54.55±8.14 | a<b, c | 53.88±8.68 | a<c |
| | Satisfaction[c] | 66(45.8) | 31.80±4.32 | | 56.97±8.11 | | 55.98±8.26 | |

여 정규성 분포와 등분산성을 검정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은 여성이 128명(88.9%), 20~23세가 108명(75%)을 차지하였다. 학점은 3.0에서 3.4가 50명(34.7%), 3.5에서 3.9가 43명(29.9%), 2.5에서 2.9가 33명(22.9%), 2.5이하와 4.0이상이 각각 9명(6.3%)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 66명(45.8%), '주위의 권유' 44명(30.6%), '입시성적에 맞춰' 19명(13.2%), '막연한 동경' 15명(10.4%)이었고, 사회적 전공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이 62명(43.1%)이 가장 높았다. 졸업 후 정신과 근무 희망은 '원함'(57명)보다 '원하지 않음' (86명)이 더 많았다.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알고 있음'이 98명(68.1%)이 '모름' 46명(31.9%)보다 많았다. 정신과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94명(65.3%), '보통' 45명(31.3%), '불만족' 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만족도는 '만족' 66명(45.8%), '보통' 64명(44.4%), '불만족' 14명(9.7%)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만족도는 정신과 근무희망(t=2.52, $p<.05$), 정신과 실습 만족도(F=17.21, $p<.001$), 전공만족도(F=4.2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학습 만족도가 높았고, 사후검증결과 정신과 실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와 전공만족도가 '만족'과 '보통'인 경우 학습만족도가 높았다. 학습 자기효능감은 정신과 실습 만족도(F=5.76, $p<.01$), 전공만족도(F=5.70,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결과 정신과 실습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와 전공만족도가 '보통'과 '만족'인 경우 학습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전이 동기는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F=2.78, $p<.05$), 정신과 실습 만족도(F=7.34, $p<.01$), 전공만족도(F=4.3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결과 개인적 전공 선택 동기가 '주위의 권유'보다 '적성'인 경우, 정신과 실습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와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전이동기가 높았다(Table 2 참고).

### 3.2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의 정도

대상자의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실습에 대한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8(±0.12)점이었다. 학습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51(±0.10)점이었고, 전이동기는 7점 만점에 평균 5.43점(±0.14)이었다(Table 3 참고).

### 3.3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전이동기의 상관관계

학습만족도와 학습자기효능감(r=.686, $p<.001$),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r=.633, $p<.001$)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r=.804, $p<.001$)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참고).

### 3.4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Table 3. Level of the Learning Satisfaction,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Motivation to Transfer** (N=144)

| Variables | Scale | | Item | |
|---|---|---|---|---|
| | Possible range | M±SD | Possible range | M±SD |
| Learning Satisfaction | 8~40 | 31.02±4.82 | 1~5 | 3.88±0.12 |
| Self-efficacy in Learning | 10~70 | 55.09±8.76 | 1~7 | 5.51±0.10 |
| Motivation to Transfer | 10~70 | 54.32±9.02 | 1~7 | 5.43±0.14 |

**Table 4. Correlation among Learning Satisfaction, Self-efficacy in Learning, and Motivation to Transfer** (N=144)

| Variables | Learning Satisfaction | Self-efficacy in Learning | Motivation to Transfer |
|---|---|---|---|
| | r(*p*) | r(*p*) | r(*p*) |
| Learning Satisfaction | 1 | | |
| Self-efficacy in Learning | .686(<.001) | 1 | |
| Motivation to Transfer | .633(<.001) | .804(<.001)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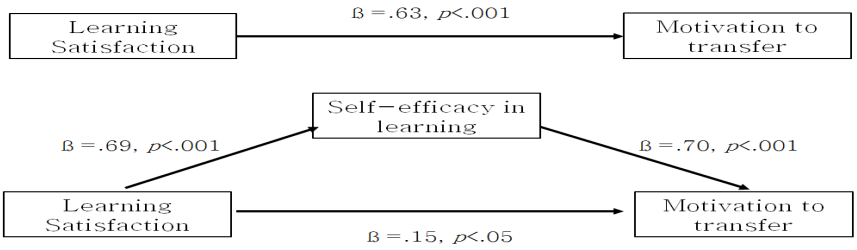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and Motivation to Transfer.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and Motivation to Transfer (N=144)

| Variables | B | Beta(ß) | t | p | Adj. $R^2$ | F | *p* |
|---|---|---|---|---|---|---|---|
| Step 1. | | | | | | | |
| Learning Satisfaction → Self-efficacy in Learning | 1.25 | 0.69 | 11.24 | <.001 | 0.467 | 126.25 | <.001 |
| Step 2. | | | | | | | |
| Learning Satisfaction → Motivation to Transfer | 1.18 | 0.63 | 9.74 | <.001 | 0.396 | 94.78 | <.001 |
| Step 3. | | | | | | | |
| Learning Satisfaction, Self-efficacy in Learning → Motivation to Transfer | | | | | 0.654 | 107.04 | <.001 |
| 1) Learning Satisfaction → Motivation to Transfer | 0.29 | 0.15 | 2.26 | <.05 | | | |
| 2) Self-efficacy in Learning → Motivation to Transfer | 0.72 | 0.70 | 10.35 | <.001 | | | |
| Sobel test : Z=7.63, *p*<.001 | | | | | | | |

지수는 1.93~ 2.06으로 2에 가까워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산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분산팽창요인) 지수가 1.00 ~ 1.89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전이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잔차의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Kolmogorov-Smirnov의 유의수준 .063으로 *p*>.05를 만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습만족도가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참고).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학습만족도가 매개변수인 학습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ß=.69, *p*<.001), 학습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6.7%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학습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전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ß=.63, *p*<.001), 전이동기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9.6%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학습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전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학습만족도와 학습자기효능감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전이동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만족도(ß=.15, *p*<.05)와 학습자기효능감(ß=.70, *p*<.001)이 전이동기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했을 때 학습만족도는 전이동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의 1.18에서 0.29로 감소하여 학습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전이동기를 설명하는 정도는 65.4%로 나타났다. 학습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표준화 환자를 적용한 정신간호학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부분 매개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Z=7.63, *p*<.001)(Table 5 참고).

##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실습을 받은 대상자의 학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8점으로 교육만족도를 측정한 연구[7]의 3.95점과 유사하였지만 학습만족도를 측정한 연구[3]의 4.3점보다 약간 낮았다. SP를 활용한 간호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각각 상이한 간호학 교과목과 측정도구의 차이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므로[9]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는 정신과 근무를 희망할수록, 정신과 실습만족도가 만족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만족일수록 높았다. 이 결과는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교육이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수행능력과 학습만족도를 높여줌을 보고한 연구결과[3,9,16]를 지지한다.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동기, 교수-학생상호작용을 고려하여[17] 대상자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실습을 받은 대상자들의 학습자기효능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51점, 총 70점 만점에 평균 55.0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신영과 권영란 연구[3]의 중재 후 평균 60.0점, 한은수와 김선희의 연구[14]의 평균 59.00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선행연구[3,14]와 달리 3학년이었다. 이들은 아직 정신간호학 임상실습 경험이 없었으며 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이 크고 자신감은 낮기 때문[2]에 학습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특히 임상실습 초기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흥미와 참여 및 학습동기를 높이고 임상수행 자신감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간호학생의 학습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학습 자기효능감은 정신과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만족할수록 높았다. 이것은 학습자기효능감이 학업수행 및 임상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주며[21,22],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됨을 보고한 연구의 결과[25]를 지지한다. 즉, 정신과 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학생들이 SP활용 실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상호작용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실무현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SP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학습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학습방법임[4,7,9-11]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전이동기는 7점 만점에 평균 5.43점이었고, 총점 70점 만점에 평균 54.32점이었다. 이것은 박신영과 권영란[3]의 연구에서 평균 54.7점, 김선희 등[13]의 연구에서 평균 54.47점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이동기는 개인적 전공선택 동기가 적성에 의한 것이고, 정신과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전이동기는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전이동기와 학습자기효능감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선행연구[3,13,14]를 지지한다. 이 결과는 주위의 권유보다 자신의 적성에 따라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높은 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보이며, 이런 학생들이 실습교육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학습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이 배울수록, 실무관련성이 더 많을수록, 참여기회가 많을수록 전이동기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6]와 유사하다. 선행연구[15]에서는 전이동기가 훈련내용에 대한 대상자들의 태도에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훈련 프로그램에 자기 주도적인 참여, 팀 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대인관계의 경험, 프로그램 과정동안 적절한 동료지지와 교수자 지지 등이 전이동기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들의 학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학습만족도와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전이동기가 높아졌다. 이들 변수가 전이동기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65.4%로 간호학생의 전이동기에 학습만족도와 학습자기효능감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을 통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전이동기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학습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하며, SP를 활용한 실습이 유익한 학습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SP를 활용한 융합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와 학습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학습에 대한 전이동기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은 참여와 대인관계,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학습전략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SP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간호학생의 자신감과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단계적 실습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필요한 학습역

량을 습득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 대다수가 여성(88.9%)으로 연구결과를 남성에게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표준화환자와 간호학생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는 추후 인과관계와 관련된 변수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밝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P활용 정신간호학 융합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에 대한 학습만족도와 전이동기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SP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융합시뮬레이션 실습은 간호학생의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추후 연구를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SP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연구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다양한 그룹을 포함한 반복 연구를 통해 학습만족도, 학습자기효능감 및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학습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전이동기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자들의 동기부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 SP 활용뿐 아니라 온라인 활용방법 등 다양한 전략을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효과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Y. H. Shin, H. K. Hur, S. M. Park, H. Y. Song & G. Y. Kim. (2007).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inical Nursing Practice Course for Improvement of Nursing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3(1),* 32-40.

[2] J. S. Han, H. C. Baek & A. S. Jeong. (2015). The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simulation on anxiety and self-confidence about clinical plac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812-7819. DOI : 10.5762/KAIS.2015.16.11.7812

[3] S. Y Park & Y. R. Kweon. (2012).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1),* 79-88. DOI : 10.12934/jkpmhn.2012.21.1.79

[4] K. J. Do, J. H. Woo & J. H. Jang. (2015). The effect of learning outcome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educ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J Korean Soc Wellness, 10(4),* 159-170.

[5] M. A. Machin & G. J. Fogarty. (1997). The effects of self-efficacy, motivation to transfer, and situational constraints on transfer intentions and transfer of training. *Performance Improvement Quarterly, 10(2),* 98-115. DOI : 10.1111/j.1937-8327.1997.tb00051.x

[6] H. W. Ayres. (2005).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USA.

[7] S. O. Kim & H. S. Kim. (2014).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using simulated pati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arn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2),* 396-408. DOI : 10.5392/JKCA.2014.14.02.396

[8] G. S. Kang & Y. Kim. (201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tegrated-simulation practice progra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caring for alcoholism with diabetes mellitu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662-672. DOI : 10.5762/KAIS.2016.17.8.662

[9] Y. A. Kim & S. Yoon. (2018). The effects of nursing practical educ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9(1),* 125-140. DOI : 10/7465/jkdi.2018.29.1.125

[10] P. J. Oh, K. D. Jeon & M. S. Koh. (2015).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learning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A meta-analysis, *Nurse Educ. Today, 35(5),* e6-e15. DOI : 10.1016/j.nedt.2015.01.019

[11] Y. G. Bak & T. K. Kim. (2018).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using a standardized patients for schizophrenia nursing care 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learning self-efficacy and flow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6),* 437-447. DOI : 10.21742//AJMAHS.2018.06.64

[12] D. L. Seyler, E. F. Holton III, R. A. Bates, M. F. Burnett & M. A. Carvalho. (1998).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to transfer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1),* 16-16.

[13] S. H. Kim, J. Y. Choi & Y. R. Kweon. (2017). Correlations among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perception of importance and transfer intention for core basic nurs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9),* 661-671. DOI : 10.5392/JKCA.2017.17.09.661

[14] E. S. Han & S. H. Kim. (2019).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Motivation, Transfer Climate, Learning Self-efficacy, and Transfer Motivation in Nursing Students Received Simulation-base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0),* 332-340. DOI : 10.5762/KAIS.2019.20.10.332

[15] A. Gegenfurtner, D. Festner, W. Gallenberger, E. Lehtinen & H. Gruber. (2009). Predicting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 to transfer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3(2),* 124-138.

[16] K. S. Hyun & Y. H. Jeong. (2010).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competence on diabetic diet educ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self-efficacy, communication, learning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2(2),* 221-228.

[17] M. K. Cho & M. Y. Kim. (2017). Effects of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468-477. DOI : 10.5392/JKCA.2017.17.04.468

[18] R. N. Rimal. (2000). Closing the knowledge-behavior gap in health promoti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Health communication, 12(3),* 219-237.

[19] H. S. So et al. (2017).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Senior Students of A Nursing College: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Nursing & Health Issues, 22(1),* 12-20.

[20] K. M. Yang. (2019).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Medit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455-466. DOI : 10.35873/ajmahs.2019.9.8.001

[21] J. Kim & N. Heo. (2017). Academic Self- Efficacy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 611-623. DOI : 10.22251/jlcci.2017.17.2.611

[22] J. Kim, H. O. Kim & M. Lee. (2019).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5(2),* 205-213. DOI : 10.4094/chnr.2019.25.2.205

[23] T. Honicke & J. Broadbent. (2016).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performance: A systematic review. *Educational Research Review, 17,* 63-84. DOI : 10.1016/j.edurev.2015.11.002

[24] P. R. Jeffries. (2007).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From conceptualization to evaluation.* New York, NY: National League for Nursing.

[25] K. H. Lee. (2019).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297-306. DOI : 10.15207/JKCS.2019.10.3.297

[26] S. Liebermann & S. Hoffmann. (2008). The impact of practical relevance on training transfer: evidence from a service quality training program for German bank clerk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2(2),* 74-86.

오 현 주(Hyun-Joo Oh) [정회원]

· 201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4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 hjoh@dst.ac.kr

김 미 자(Mi-Ja Kim) [종신회원]

·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감염관리
· E-Mail : kmija67@dst.ac.kr

박 경 미(Kyung-Mi Park) [정회원]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 E-Mail : suhein20@dst.ac.kr